

# 직접 지원보다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경기부진과 생산비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중소·벤처기업정책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독일, 싱가포르, 핀란드, 일본 등은 성공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 펼치고 있다.

이들 5개국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보자.

## 선진 5개국에게 배워야 할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소기업의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은 신용보증 중심의 금융 지원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 등 간접적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또 혁신적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을 자극하기도 한다. 이처럼 미국은 보호육성정책이 아닌 철저한 시장원리에 의해 중소기업이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

국가경쟁력 1위를 달리고 있는 핀란드는 경제정책을 '산업별 접근방식'에서 '클러스터별 접근방식'으로 전환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관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강소국의 특성에 부합하는 제도적 환경조성을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함이다.

기업활동하기 유리한 경제환경과 제도가 조성된 독일은 합리적인 금융시스템과 특화된 분야의 직능단체가 각기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싱가포르는 '시장원리 극대화'와 '효율적 경제정책 구사'의 장점을 조화시켰다. 자국내 다국적 기업과의 상생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전략적 차원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추진하고 있는 것. 이는 결과적으로 자국내 중소기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짜임새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은 경제발전 단계별로 정부 주도 하에 시의 적절한 정책조합(policy mix)을 구사하는 한편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협력과 경쟁의 전통은 유지·강화하고 있다.

일본, 싱가포르, 독일, 핀란드 그리고 미국 등은 서로 다른 풍토와 경

제발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중소기업정책 또한 상이하다. 그러나 총체적 관점에서 보면 '정부주도형 정책'과 '시장 매커니즘에 의한 정책' 바탕 위에 각국의 특성에 적합한 '개량된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자국의 경제발전 단계와 국가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tailored policy)'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나아가야 할 4가지 방안

우리는 선진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통해 '창업 지원우선정책', '지방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클러스터정책', '혁신중소기업의 차별 지원정책' 그리고 '글로벌경쟁 환경을 고려한 지원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 1 창업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라

선진국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있어 경제의 활력을 제고시키고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관련있는 창업지원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의 중소기업투자공사(SBIC) 윈스톱 창업지원과 'LowDoc프로 그램' 활성화가 대표적이며, 일본도 1999년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을 통해 창업·기업가정신 고양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절차를 단축하고 창업지원센터를 분야별로 전문화하여 수익창출과 직결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 선진국의 중소기업 정책



### 미 국

보호육성이 아닌, 철저히 시장원리에 의해 기업이 경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신용보증 중심의 금융지원 시스템  
 - 혁신적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 독 일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는 각종 시스템 구비  
 - 수요자(중소기업) 중심의 지원체제 구축  
 - 금융지원, 직능단체의 지원 시스템이 공급자 논리가 아닌, 수요자 needs에 밀착



### 핀 란 드

강소국의 특성에 부합하는 제도적 환경 조성  
 - '산업별 접근방식'에서 '클러스터별 접근방식'으로 경제정책을 전환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관계 극대화 도모



### 싱가포르

'시장원리 극대화'와 효율적 경제정책 구사의 장점을 조화  
 - 싱가포르 내 다국적기업과의 상생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전략적 차원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추진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결과적으로 자국내 중소기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



### 일 본

'정부 주도 중소기업 육성정책'으로부터의 변신을 추구  
 - 경제발전 단계별로 정부 주도하에 시의적절한 정책조합을 구사  
 -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협력과 경쟁의 전통 유지

## 2 지역별 클러스터를 적극 육성하라

내수중심 기업이 중소기업 전체의 81.9%(기협중앙회, 2002년 매출액 기준)를 차지한다. 내수중심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정지역에 밀집하여 클러스터를 이루고 이를 중심으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핀란드에서 클러스터 중시 정책이 중소기업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지원서비스 제공이 클러스터를 성공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센터 설립에 필요한 초기자금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단체들이 공동 부담하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또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 지원 관련기관을 네트워크화하여 현재 가용 가능한 지원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3 혁신적 중소기업을 차별하여 지원하라

기술 선진국의 경우, 직접적인 자금지원은 축소하고 있지만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을 자극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좋은 예가 미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프로그램(SBIR)'이다. 미국은 1982년 연방정부 차원의 각종 직접 지원제도를 대부분 폐기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에 자본금의 3배까지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와 우수한 중소기업에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중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에 할당하는 SBIR을 시행하여 성과를 올렸다. 이에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SBIR을 벤치마킹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실요성 제고를 위한 보완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R&D예산 시행주체인 정부와 수혜자인 기업 상호간에 호순환적 자극을 주는 '인센티브형 기술혁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스라엘의 경우 프로젝트 성공시 정부가 일정비율의 로열티를 징수하는 개별 기업 R&D지원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기술인력 유치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4 글로벌 경쟁환경 고려해 지원하라

최근 우리 기업의 생산거점이 해외로 이전되는 추세이다. 이런 추세는 전세계적인 흐름이며 일본은 대·중소기업 협력 관계가 중국으로의 생산거점 이전 추세에 따라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판단하여 보완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싱가포르, 핀란드 등은 글로벌경제 환경 하에서의 사업전개를 염두에 두고 중소기업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비취볼 때, 국내에 사업기반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향후 글로벌화를 염두에 둔 기업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중소기업은 글로벌화의 장점인 사업기회의 확대, 비용절감, 국제분업, 활성화 등을 제대로 이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중소기업 수출저변의 확충과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 강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선진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시사점>